

한남대학교 교수의 기독교대학 인식조사 및 대학성공속성 분석

박문식 한남대 교수

초록

본 논문에서는 기독교대학이 그 본질과 가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문헌조사 연구방법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인 백석대학교의 사례를 사용하여 한남대학교 교수를 대상으로 하여 기독교대학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도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하여서는 기독교대학의 교육이 인공지능과 4차 산업 그리고 저성장으로 대변되는 대전환의 시대에 여전히 교육을 통한 선교의 적실함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교수들의 인식 속에 있는 자기들이 근무하고 있는 기독교대학의 상을 통해서는 설립이념과 교육목적에 매우 헌신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도로 활동을 하고 있으나 미래에 대한 신념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주로 정체성의 상실, 세상과 같은 방법론의 학교경영에 대한 불신,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학교 운영 재정에 대한 위기의식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독교대학이 위기에 대응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방향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점에서 국내 기독교대학들은 깊이 있는 연구들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미국의 경우와 같이 연합체인 CCCU에서 기독교대학과 관련되는 여러 실증적인 연구들을 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그러한 활동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의 기독교대학들은 일반적 담론에 그치지 않고 고등교육기관에 걸맞게 자기 기관들에 대한 조직론, 경영론, 혁신론, 문화론, 역사론 등의 분야에서 연구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직론적 관점에서 조직 효능감을 바탕으로 한남대학교의 교수들이 인식하는 기독교대학의 성공의 속성과 그 수준들을 제시하고 측정해 본다.

한남대학교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교수들의 설문조사 응답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는 당면한 기독교대학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위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공동체 문화적인 관점에서 공동의 주제에 대한 공감 및 소통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교수들의 현재 대학에 대한 헌신의지는 매우 높은 반면 미래 발전에 대한 기대치는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리더십의 비전제시가 부족하고 따라서 교수 역량을 집결하면서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음을 시사한다. 셋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한남대학교는 현재보다는 두 배 이상으로 더욱 기독교적 정체성과 가치를 추구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뉴노멀이 전개될 미래에 한남대학교는 하나의 대학으로서가 아니라 뚜렷한 기독교대학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시장주의적 학문의

자유지향보다는 기독교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바탕으로 한 수월성을 추구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로 한남대학교 교수들이 인식하는 한남대학교의 성공 속성들을 실증적으로 구하였다. 이것은 이론연구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고 교수들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생각한 결과물이라는 데서 매우 실증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공속성은 대학의 성공의 목표 값으로 분명히 설정할 수 있다는 면에서 대부분의 대학이 경험하는 무지향성의 바다에서 등대와 같은 매우 유용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한남대학교는 정체성과 교육에 있어서는 문화변혁적이면서도 전통을 고수하는 것을, 교수인사, 직원인사, 학교분위기에 있어서는 문화변혁적이면서 포용성을, 재정확보에 있어서는 포용성과 시장주도를 반영하는 것을 성공으로 인식하고 있다.

I. 서론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국내에는 93개의 기독교대학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 카톨릭 배경은 13개, 개신교 배경은 80개이다. 개신교 신학대학 13개를 제외하면 67개 개신교 종합대학이 존재하고 있고 이 중에서 기독교 교과목을 의무화하고 있는 대학은 60개 정도이다. 미국의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대학과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이 기독교대학의 기원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종교성이 없는 일반대학인 것에 비하면 아직까지 한국의 기독교대학은 그런 경우는 없다. 2022년도 국가통계에 의하면 대학의 수는 총 336개교인데 이 중에서 기독교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28%에 해당한다. 인구 통계학적으로 보면 기독교대학은 국가 고등교육에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미 20년 전에 기독교대학이 여타 고등교육기관에 비해 수업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자금 조달에 있어서 심한 압박에 직면하면서 기관의 역사, 전통 및 독특한 문화를 보존하는데 있어서 극한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¹⁾ 재정확충에 대한 어려움은 인구통계학적인 변화로 입학자원이 감소하는 데에 따른 것과 교육에서의 첨단기술의 도입에 따른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이 증대하는 양측에서 발생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면적인 혁신이 요구되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사회적인 환경이 각각 약 10여년의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통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한국의 기독교대학들이 맞이하는 상황과는 잘 중첩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는 다르게 한국에서 매우 두드러진 외적변수 중에 하나로서 강력한 정부주도의 대학정책을 추가할 수 있겠다.

가중되는 기독교대학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 경험하는 위기의 본질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탐색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기관의 차원에서 탐색, 협력, 제도적

1) Dockery, D., & Gushee, D. (1999). *The Future of Christian Higher Education: An introduction*. Broadman and Holman Publishers. Nashville, TN.

접근등은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한 것으로 보인다. 복미주의 경우 1976년 설립된 기독교대학협의회(CCCU)를²⁾ 중심으로 188개의 복음주의 계열의 고등교육기관이 연합하여 대응하는 것에 비하여, 한국의 1993년 조직된 한국기독교대학연맹은 초기의 적극적 활동에 비하면 2023년 현재 명목상의 35개 회원교만을 가지고 있을 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기독교대학연맹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보니 1976년 설립된 아시아기독교대학 협회(ACUCA)에서도 한국 회원의 6개교는³⁾ 한국의 경제적 능력에 걸맞은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 번영에 걸맞은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역할에 부응하지 있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개신교 기독교대학은 태동기와 성장기, 번영기를 지나온 한 세기 동안 여러 위기들에 직면하였으며 그것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의 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책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연구되거나 정책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문헌조사방법을 통하여 기독교대학과 기독교교육을 둘러싼 문제들과 그 본질을 조사한다. 그리고 고찰을 통해 기독교대학의 현상들과 원인들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선행연구인 김지원(2022)의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교수의 기독교대학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원용하여 동일 조사를 한남대학교 교수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비교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한남대학교 교수들이 인식하는 대학의 성공속성을 찾아볼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잠재적인 중요성공요인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먼저 기독교대학의 유형은 세 가지 측면에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로는 형태론적 유형으로서 신학교와 종합대학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종합대학에는 국립, 사립, 교립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다양한 교파에 따라 구별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교단, 로마 카톨릭 등을 들 수 있다.

둘째로는 내용론적 구분으로서 니버(Niebuhr)의 기독교와 문화의 상호관계 모델을 기독교대학의 유형에도 적용하여 대립모델(Christ against culture), 일치모델(Christ of culture), 지배모델(Christ above culture), 병행모델(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변혁모델(Christ transformer of culture)로 분류하는 것이다.⁴⁾

셋째로는 목적론적 구분으로서 설립목적 및 교육목적에 따른 유형이다. 크게는 학문의 수월성의 추구하고 지도적 기독교인재의 양성을 들 수 있고 학교마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2) Council for Christian Colleges and Universities. www.cccu.org (2023.7.1.)

3) Association of Christian Universities and Colleges in Asia. <https://acuca.net/newacuca/> (2023.7.1.)

4) 조성국 (2005). 기독교대학의 유형과 상황. *고신신학*, 105-134.

대부분의 한국의 기독교대학들은 기독교정신, 기독교신앙, 기독교원리, 기독교교의를 근본이념 또는 철학으로 표방하면서 학문을 심화 발전시키며 인격을 도야하여 국가와 사회와 교회에 봉사할 지도적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천명하고 있으므로 그 차별성은 찾아보기 힘들다.⁵⁾

어느 범주의 기독교대학이던지 간에 저출산과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독교대학의 위기는 대학으로서 퇴보 및 소멸에 대한 것이 지배적이다. 한국의 출생아 수는 1960년에 1백만명에서 2000년에는 63만명, 2020년에는 27만5천명으로 급감하였다. 이것은 20년 후에는 현재 대비 대학 입학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현재도 이미 입학정원이 입학인구를 10만명 이상 상회하는 마당에 이것은 향후 20년간 대학간의 극심한 경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동안 양적으로 급성장하면서 그 과정에서 세속화의 길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기독교대학들은 제대로 된 확립기를 다지지 못한 채 생존의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합위기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것이었던가? 아니면 한 세기동안의 기독교대학의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있어 왔었던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대학이 가져야 할 가치와 본질은 무엇이었던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문헌조사를 통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기독교대학이라는 주제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연구 분야 또는 연구문제를 살펴볼 수도 있겠다.

1906년 평양에 송실대학을 설립한 것을 기점으로 하여 설립된 기독교대학들은 교파, 재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었고 그중에서도 정체성에 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1915년 서울에 조선기독교대학(1917년 연희전문학교)이 설립되면서 종교성(기독교성)과 학문성(근대성) 간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⁶⁾

“대학이 한 문명의 지식을 창출하고 전달하는 기관이라면, 신설되는 조선기독교대학이 지향하는 문명은 근대(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의) 기독교 문명인가 아니면 근대(20세기 초 일본의) 세속 문명인가라는 질문과 관련되어 있었다. 평양은 후자 측면이 약했고, 서울은 양자를 아우르면서 우위를 차지했다.”

기독교대학이 본격적으로 종합대학으로 도약하는 시기에는 이러한 세속화에 대한 정체성의 위기가 가중되었고 하나의 일반대학의 대안이 될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대학의 본래적 모습을 지닌 독특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었다. 1966년 기독교 대학교육의 문제점이라는 논문에서 오은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⁷⁾

“오늘 한국 기독교 대학들은 중대한 자기결단을 해야만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된다. 대학의 질적 가치가 일반 대학을 능가하는 참다운 기독교 대학을 운영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낙오의

5) 김동우 (1998). 한국 기독교대학의 교육이념과 정체성위기에 대한 연구, 28-34.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6) 옥성득 (2021). 대학문제: 조선기독교대학의 설립과정과 정체성, 1913~1917. 동방학지, 196, 353-386.

7) 오은수 (1996). 기독교 대학교육의 문제점. 기독교사상, 10(4), 76-81.

길을 걷고야 말 운명의 기로에 섰다고 본다. 일반 대학 수준 이하의 기독교 대학의 운영은 세상의 빛도 되지 못하려니와 기독교 대학의 특이성을 옹기 살리지 못하면 길가에 밟히는 맛 잃은 소금의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제는 기독교 대학이라는 이름을 갖는 하나의 대학을 해 보는 시기는 지났다.”

기독교대학이 일반대학들과 경쟁하면서 특히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지역 기독교대학들이 겪는 학생유치의 어려움은 학교의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였다. 1962년 계의돈(Roberet L. Goette)의 미국 선교재단에 보낸 선교편지를 참조해 볼 수가 있다.⁸⁾

“정부가 우리에게 허락한 최대 등록인원은 340명입니다. 현재 학생은 그 절반 정도입니다. 많은 학생이 공부하기 위해 대도시인 서울로 가고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만 달러 상당의 설비를 주문했습니다. 실험실의 설비와 공간을 이용하게 된다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금 여러분의 재정과 기도 후원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의돈은 23세에 플로리다대학에서 화학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아 듀폰에서 근무를 하다가 내한하여 1960년부터 1987년 까지 한남대학의 교육선교사로 봉사하였으며 화학과를 발전시키고 ‘성경과 과학’을 강의하였으며 KIST 설립과 한국창조과학회의 설립에도 관여하였다. 1973년 엑스포대회 때 조직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한남대학에서 개인전도훈련부를 운영하면서 교수와 학생의 개인신앙훈련을 지도하였다. 1962년 김기수도(Keith R. Crim) 선교편지를 통해 신입생 수급의 문제와 교수 수급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⁹⁾ 여기서는 기독교대학 정체성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는 기독교수의 안정적인 수급의 문제를 앞서 내다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새로운 교육정책을 펴면서 대학생 수를 급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신입생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우려하였고, 서울보다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이 정책의 영향을 더욱 심하게 받아 신입생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였다.”

“대전대학이 기독교인 교수들만 임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대학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헌신된 기독교인 교수를 계속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다.”

대전대학은 한남대학교의 전신인 단과대학을 말한다. 이들은 일제식민치하에서 병원과 기독교 학교를 운영하면서 각종 통제를 겪어 보았고 끝까지 학교를 지키다가 신사참배의 강요를 당하면서 1936년에 모든 학교의 폐쇄를 결정했던 경험을 공유하였던 까닭에¹⁰⁾ 정부의 허가(permit)에

8) 이정순 (2022). 과학자 계의돈(Dr. Robert L. Goette)박사의 한국 선교이야기, 100-104, 개정판, 기독교문서선교회.

9) 최영근, 송현강, 이재근, 이진구, 한규무 (2022). 미국 남장로회 교육선교 연구, 286-288, 도서출판 동연.

10) 최영근 (2022). 인본의 생애와 기독교 정신, 114-128, 한국교회총연합(UCCK).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대학의 허가제가 아니라 일정 수준을 확인해 주는 인증제(accreditation)가 있을 뿐이다.

1998년 한국의 7개 기독교대학들의 교육이념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위기의 요인들을 제시한 논문이 있다.[5] 외부적 원인들로는 국가주도의 교육정책, 기독교대학의 생존을 위한 현실타협, 기독교대학에 대한 교회의 무관심을 들었으며 내부적 원인들로는 교육철학의 부재, 교육의 이원적 행태 등을 꼽았다. 기독교대학이 세속화를 지향하게 되는 것은 국가를 의존하고 현실과 타협하기 때문이며 그 문제의 밑바닥에는 재정문제가 깔려있고 대학이 형식적으로는 서구적 대학이면서도 재정은 자립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인다. 즉,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기독교대학이 정체성을 구현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저자는 한국이 신자유주의 경제모델로 전환되고 그 연장선상으로 정부가 대학교육개혁에 끼친 영향을 고찰하면서¹¹⁾ 더욱 심화되어 버린 대학의 양극화와 질적 저하를 지적하였다.

“정부는 선정대학 평가에 사용되는 정책지표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학의 구조 및 교육과정의 방향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정권과 함께 전략적으로 정책화되어 추진되어 온 정부의 여러 고등교육개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여건은 더욱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대학경쟁력은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지방대학과 사립대학을 중심으로는 빈익빈 현상의 가속화로 학생충원이 어렵고 학문의 질을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화되었다.”

2014년 기독교대학 정체성 회복을 위한 이신형의 연구에서는¹²⁾ 두 상반된 주장을 소개하고 있는데 양승훈은¹³⁾ ‘신앙공동체’ 구성원들의 신념과 가치관의 차원에서, 김세열은¹⁴⁾ 대학교육의 장에서 ‘학문공동체’의 관점에서 정체성을 제시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조용훈은¹⁵⁾ 정체성의 위기로서 지성의 반종교화, 입학경쟁 서열화, 기독교 문화의 약화, 선교적 헌신과 열정의 약화를 들고 있고 그 원인으로는 세계관의 세속화, 정부 통제, 대학의 거대화, 신앙과 학문의 연계의 부족을 들었음을 밝혔다. 이신형은 결론적으로 종합하여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는 구성원 주체,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학문 활동, 채플과 기독교필수과목으로 정리하였다. 즉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은 기독교수의 자아정체성의 확립에서부터 시작하여 학문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생들을 통하여 가르침과 배움에서 확립된다고 본 것이다. 특히 그는 기독교대학 정체성을 펼쳐 나가야 할 주체와 대상에 대하여 여러 광범위한 주장들을 종합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12]

“기독교대학의 구성원이라는 신분이 자동적으로 대학의 정체성 확립의 주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11) 박문식 (2010). IMF 구제금융사건 이후 대학교육개혁의 기독교적 고찰, 신앙과학문, 15(3), 47-76.

12) 이신형 (2014). 기독교대학 정체성 회복을 위한 연구, 한국조직신학논총, 40, 129-171.

13) 양승훈 (1996). 기독교대학, 그 이상을 꿈꾼다. 빛과소금, 11, 30-32.

14) 김세열 (1997). 한국의 기독교대학과 아시아적 조망. 21세기의 아시아와 기독교대학, 10, 7-13.

15) 조용훈 (2003). 한국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의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 통합연구, 16(2), 193-224.

것이 아니다. 비신자만이 아니라 때로는 대학구성원이 선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교목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다.”

“필자의 인식에 의하면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회복은 기독교대학 교수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기독교대학 교수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학생들의 정체성, 즉 기독교인 학생으로서의 자아정체성이 확립된다.”

기독교대학이 세속화되어가는 첫 단계의 현상은 그 대학이 설립이념이나 교육목적 즉 사명선언문에서 종교적 연결고리를 벗어나는 것이며¹⁶⁾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독교대학이 종교적 사명에 맞게 교육철학을 수립하여 신앙과 통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⁷⁾ 그러나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학의 전 영역, 즉 교육과 연구와 행정의 제반 분야로 세분화되어 검토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그러한 활동이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체성 구현에 있어서 교수의 역할과 책임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독교수의 역할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개발이 필수적이며 그 사례들을 제시한 논문이 있다.¹⁸⁾ 국내의 기독교대학들이 교수개발에 있어서 일반 교수법 강좌에 머무르며 보편적 연구 실적물 위주의 학문성과를 정년직 승진의 중요 기준으로 삼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발현할 수 있는 기준들을 승진의 필수항목으로 반영하여 세속화를 막고 설립목적 을 구현하는 주체로서의 교수들의 교수개발을 장려하는 정책은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방법론적으로나 목적론적인 측면에서 기독교대학들마다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강조한다.¹⁹⁾ 그러나 많은 기독교대학들이 설립목적의 추구하고 학문적 수월성의 추구 사이의 과정에서 변천하는 역사적 궤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대학은 학문의 자유를 추구하는 일반적 세속화의 과정에, 어떤 대학은 기독교적 가치와 전통을 고수하면서 신앙, 영성, 선교를 지켜나가는 과정에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장로교 계통의 아그네스스캇대학(Agnes Scott College)의 1889년 설립부터 2012년까지의 과정에서 어떻게 하여 사명선언에서 기독교가 삭제되었는지 정체성의 변화를 역사학적으로 고찰한 연구를 참조할 수가 있다.²⁰⁾

이상의 문헌들을 종합해 볼 때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은 교육과 연구와 행정의 모든 면에 있어서

16) Marsden, G. (1993). *The Soul of the American University: From protestant establishment to established nonbelief*.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17) Hughes, R. & Adrian, W. (1997). *Models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Strategies for success in the twenty-first century*. Wm. B. Eerdmans-Lightning Source. Grad Rapids, MI

18) 이은실 (2012), 기독교대학 정체성을 위한 교수개발의 방향, 기독교교육정보, 35, 33-67.

19) 박진경 역 (1989). *기독교 대학의 이념*. Holmes, A. (1987). *The Idea of Christian Colleges*. (Revised Ed.), CUP.

20) 최영근 (2020),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미국 아그네스스캇대학의 사례연구-, 대학과 선교, 43, 129-170.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점(Christ-centeredness), 학문적 수월성을 추구하되 그 목적과 방향은 성경에 기반을 둔 하나님의 진리이어야 하는 점(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인간과 기술에 있어서 다원화와 다변화를 수용하고 발전시키되 거기서 발생하는 근본 문제들의 해결에 사명감을 가지고 나서야 하는 점(Cultural mandate)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정체성의 구현은 인적차원에서는 이사회, 총장, 교수, 직원, 학생 차원으로 전개되는 한편, 커리큘럼차원에서는 채플, 성경과목, 교양과목, 전공과목, 그리고 다양한 영성체험 프로그램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논리적 귀결로서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은 기독교수의 개인적 신앙고백과 학교의 설립이념이 융합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며, 이것이 채플 등의 종교과목과 일반 과목은 물론 다양한 성경과의 만남(encounter) 및 영성체험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초대하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르치며 모든 학문과 지식활동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실재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약자와 가난한 자를 위하고 사회적 고통을 해결하는 데 이바지하는 믿음과 배움의 통합에 대한 이상과 실천을 형성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대학들은 위기의 타개를 위하여 어떠한 방법론과 어느 정도의 혁신을 전개하고 있는가? 2001년 1912개의 미국 및 컬럼비아 지역 비영리 대학을 대상으로 혁신이론을 바탕으로 한 조사 연구에 의하면²¹⁾ 조직유형 중에서 기독교대학은 일반 사립대학보다는 더 자주, 공립대학 보다는 덜 자주 혁신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족벌형(clan), 위원회형(adhocracy), 위계형(hierarchy), 시장형(market)의 4가지의 조직문화유형 중에서 족벌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뚜렷한 유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문화이론에서 이 네 가지는 관계지향, 혁신지향, 위계지향, 과업지향으로도 불리며 관계지향유형과 혁신지향유형이 가장 상관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²⁾

조직이론에서 족벌형은 응집, 참여, 팀워크, 가족분위기의 속성을 가지며 충성심, 전통, 대인밀착성을 응집요소로, 주요 전략으로는 인적자원, 헌신, 사기부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비우세 유형 중에서는 시장형, 위원회형, 위계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분석을 통해서 혁신의 수준에 있어서는 위원회형이 우세하였고 그 다음은 우세유형 없음으로 나타났다. 위원회형은 기업가정신, 창의성, 적응성의 속성을 가지며 창업성, 유연성, 위기성을 응집요소로, 주요 전략으로는 혁신지향, 성장, 새로운 자원을 활용한다. 그러므로 혁신을 주도해야 하는 학교의 장은 어떠한 하나의 유형에 매달리기 보다는 족벌형과 위원회형 즉 관계지향과 혁신지향을 기관과 조직에 맞게 접목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이 시사하는 바는 기독교대학의 문제에 있어서 정체성 이외에도 거버넌스 및

21) Obenchain, A., Johnson, W., & Dion, P. (2004). Institutional types, organizational cultures, and innovation in christian colleges and universities, *Christian Higher Education*, 3, 15-39.

22) 이동수 (2008). 조직문화유형 척도 OCAI의 측정 속성적 건전성. *사회과학논총*, 27(1), 373-394.

조직운영론 그리고 혁신이론 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기독교대학들은 이사회, 총장선출방식, 재정과 조직을 아우르는 경영방식 등은 불가침의 영역처럼 여겨졌던 측면이 있음을 볼 때 향후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 세기 동안의 한국의 기독교대학들은 일제 치하에서는 민족 운동가, 지식인을 배출하였고 해방 이후로는 사회를 개화시키고 서구 문화를 받아들여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세계화를 견인하였다. 그러나 설립 초기로부터 교파문제, 재정문제, 정체성의 문제는 계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재정문제는 종합대학으로 성장하는 동안 새로운 학문분야의 도입에 따른 막대한 인프라 투자 비용이 필요하였으며 이를 학생 수를 늘리는 양적 팽창으로 보완하였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입학하는 1980년도부터는 양적 팽창이 학교의 재정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결과적으로 기독교대학들은 거대화되었다. 그러나 거대화의 결과는 곧 지속가능성이라는 문제를 안겨 주고 있다. 미국의 기독교대학들의 등록학생수가 휘튼, 칼빈, 도르트, 바이올라, 베델, 벨몬트, 리버티 대학 등 대략 평균 3~4천명인 것에 비하면 한국의 기독교대학들은 그 3~4배, 많게는 10배 정도이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대학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문헌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과 미국에서 정치학과 법학 및 역사학을 공부하고 교수이자 교육행정가, 외교관, 총장을 지냈던 이원설은²³⁾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²⁴⁾

“선교사들이 기독교학교를 설립했던 목적은 단순히 신학문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에 있어서 교육은 궁극적 목적이 아니었다. 그들의 종국적 목표는 교육을 통한 선교였다. 기독교학교가 이 목표를 상실한다면 그 학문 수준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이미 기독교학교로서의 본질을 상실한 것이다. 사실 선교를 목표로 한다고 해서 학문의 수준이 저하되지는 않는다.”

또한 이원설은 지식사회의 도래를 내다보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지식사회’의 도래를 낙관적 측면에서만 보는 단견을 지녀서는 안 된다. 그 이면에서 정보화가 가져오는 각종 원치 않는 부산물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한다. 즉 정보의 과다공급(information glut)이 가져오는 혼란, ‘그레삼의 법칙’으로 나쁜 정보가 좋은 정보를 구축하는 현상, 그리고 지식이 악의 도구화하는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이원설은 기독교대학은 하나님중심세계관을 모든 학문의 기본에 두어 자연관, 인간관, 사회관, 국가관, 경제관, 역사관, 예술관 등을 정립하는 이른바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야말로 기독교교육을 보다 유효하게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천지인’의 삼축 사상을 비교하기도 하였다. 즉, 그것이 기독교교육의 ‘특이한 사명’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대학의 본질은 현대 정보화 및 기술사회에서 더욱 그 유효성이 커져가며 학문적 수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도덕적 수월성과

23) 정선혜 역 (2017). 하나님의 사람 문명사학자 송계 이원설 박사, 그리심.

24) 이원설 (1998). 하나님 중심 세계관과 학문, 기독교언어문화소식, 2, 57-65.

영적 탁월성이야말로 미래 세대를 위한 그리스도 중심의 교육이 됨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원설은 이미 1980년대에 기독교대학과 기독교교육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²⁵⁾

“첫째는 오늘날의 지식은 더욱 세분화, 다양화 되어 가기 때문에 자기 전공 이외의 것은 더 모르게 되며, 둘째 지식의 깊이가 더 할수록 모르는 것은 너무 많은 즉 지식의 유한성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식이 높아갈수록 예측불허의 시대가 도래되는 무지혜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문헌조사연구를 통하여 볼 때 기독교대학은 정체성 위기와 생존의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속화는 일반학문의 수월성의 추구라는 점과 공동체의 비신앙적 분위기의 양측에서 병행되면서 설립의 본질과 가치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크게 학교의 거대화화 정부주도의 정책의 영향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어떤 면에서는 불가항력적 이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 원인에 대한 연구나 분석이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는 이사회나 강한 리더십의 부재 및 기독교대학들의 연합체로서의 전략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부적절한 대응의 귀결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특히 거대화화 재정의 문제는 강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교수 및 직원의 직장으로서의 유지의 의미에서 대학생존의 필요성이 대학설립의 본질과 가치를 압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과 기후위기와 저성장으로 대변되는 복합문제를 안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학문적 수월성과 병행하여 윤리성, 인간성, 통합성을 강조하는 기독교교육을 통한 선교, 즉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더욱 유효하고 적실함을 말해준다. 기독교대학은 일반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맥락이 아니라 성경에 기초한 그리스도-중심의 특별한 기독교적 맥락을 가져야 하는 신앙공동체이자 학문공동체이다. 기독교대학은 학생들에게 직업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 것 이상의 무엇을 준비시켜야 한다. 그것은 직업을 가지고 타자를 섬김으로서 타자인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어야 하며 불확실한 미래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직업사회를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기독교대학은 시대를 반영한 제대로 된 혁신과 적응이 요구된다 할 수 있겠다.

III. 기독교대학의 성공에 대한 인식

기독교대학의 성공을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척도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사회적인 통념에 의하여 기독교대학도 일반대학의 하나이므로 정부나 권위 있는 평가기관에서 기준으로 제시하는

25) 이원설 (1998). 신앙과 학문, 2-3, 서울기독교학생회출판부.

소위 객관적인 공시 척도가 있다. 둘째, 객관척도의 다른 한 가지로서 국가나 사회가 기대하는 기독교대학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얼마나 부응하였는지에 대한 대사회적 기여척도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주관적인 척도로서 각 대학의 기독교적 설립이념에 따른 교육목적에 얼마나 이루었는지에 대한 척도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문헌조사연구나 학교의 정관 및 규정체계를 기초로 하여 성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깊이 있는 이론적 연구와 규범적 연구를 통한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대학의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대학의 성공 척도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조사연구를 통한 실증적인 방법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마지막 성공 척도인 기독교대학의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성공에 대하여 설문조사 및 통계학적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국제기독교학교연맹(ACSI,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은 기독교학교의 6가지 탁월성 중대요소를 이사회 거버넌스, 경영 리더십, 학교 생존력, 영성 형성, 학교 문화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에서 기독교대학의 생존의 차원에서는 앞 장에서 다루었듯이 크게 정체성의 유지와 재정적 뒷받침을 들 수 있다. 기독교대학의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실증연구 논문을 참고하면²⁶⁾ 두 가지의 핵심요인은 정체성과 재정이다.

일반적으로 구성원이 인식하는 조직의 성공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조직효능감척도(OEI,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ventory)가 있다. 예를 들어 쿠크(Cooke)는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조직문화척도(OCI, Organizational culture inventory)를 토대로 하여 태도와 행동 지표들을 개발하였다.²⁷⁾ 여기에는 미션과 철학(mission and philosophy), 인사 분야 역량(skills), 업무 프로세스와 방법론(systems), 문화적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조직의 구조(structure)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을 원용하고 비영리 교육기관 및 한국적 상황을 감안하여 구성원이 인식하는 대학의 성공을 측정하기 위하여 부록 Table 1과 같이 6개의 성공속성들을 정의하고 속성에 대한 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값들을 표시하였다. 여기서 구성원들은 기독교대학의 성공을 ‘정체성 신념(I)’, ‘교육 콘텐츠(E)’, ‘교수 인사(P)’, ‘직원 인사(S)’, ‘학교 분위기(M)’, ‘재정확보(F)’로 인식할 것이라는 가설을 사용하였고 각각의 속성의 값들을 나열하여 선택하게 함으로서 응답이 가장 뚜렷한 것을 성공을 인식하는 참 값으로 보기 위한 것이다. 즉, I의 ‘정체성 신념’ 속성에서 ③이 가장 우세하다면 구성원이 인식하는 대학성공의 지표는 ‘정체성 신념에서 정신은 계승하되 시대적 요구와 절충한다.’가 되는 것이다.

Table 1. 기독교대학의 성공의 속성을 묻는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질문

26) 허훈, 최무털, 이경미 (2021). 시뮬레이션을 통한 기독교대학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실증연구, 생명과 말씀, 31, 301-336.

27) Cooke, R. A. (1997). Organization Effectiveness Inventory, Arlington Heights, IL.

속성: '정체성 신념' (Identity)	
I	학교의 비전과 사명 선언문에서 천명하는 신념 체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택	①창학 정신과 설립이념을 확고하게 유지한다.
	②정신은 계승하되 시대적 요구와 절충한다.
	③특수 이념보다는 보편적 이념으로 변화해 나간다.
	④시대의 변천에 맞게 완전히 변모한다.

속성: '교육 콘텐츠' (Educational Contents)	
E	학교의 교육 콘텐츠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택	①기독교 교과목과 채플을 의무과목으로 확고하게 유지한다.
	②교과목의 유지보다는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절충점을 찾아 나간다.
	③기독교 내용보다는 인문적 내용으로 변화해 나간다.
	④학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독교적 내용을 삭제한다.

속성: '교수 인사' (Professor Personnel)	
P	교수의 임용과 진급 체계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택	①학문적 수월성보다는 기독교적 사명 의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②신앙 자체보다는 기독교적으로 학문과 신앙을 통합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③기독교적인 부분은 최소한으로 하고 학문적 연구의 수월성을 강화한다.
	④기독교적 의무를 삭제하고 학문적 자유와 수월성으로 적용한다.

속성: '직원 인사' (Staff Personnel)	
S	학교의 행정 서비스와 인사제도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택	①업무 전문성과 능력을 구비 할 뿐만 아니라 신앙 내용을 반드시 포함한다.
	②업무적인 분야에서 신앙적인(사랑, 공정, 협력, 포용) 부분이 나타나도록 한다.
	③신앙적인 부분은 최소한으로 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우선시한다.
	④신앙 내용을 배제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성과를 기준으로 한다.

속성: '학교 분위기' (Mission Ethos)	
M	학교의 문화적 에토스 즉, 기풍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택	①교육과 대학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성경과 기독교적 신앙을 포함한다.
	②교육은 전문적인 내용으로 하고 대학 생활에서 기독교적인 분위기를 나타낸다.
	③신앙적인 부분은 최소한으로 하고 더 많은 인본주의적 가치를 지향한다.
	④신앙 내용을 배제하고 시대적이고 보편적인 분위기로 변화한다.

속성: '재정 확보' (Finances)	
F	공적자금 등 외부 재원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택	①외부 재원은 학교 설립 정신의 구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로만 한정한다.
	②내부적인 재정 건전성을 우선으로 하고 외부 재원은 보조 수단으로 한다.
	③외부 재원을 최대한으로 유치하여 학교 발전에 투입한다.
	④대학평가 등의 공적자금을 포함한 외부 자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상을 종합하면 기독교대학의 성공속성은 Figure 1과 같이 정리된다. Figure 1에서 성공속성에는 6가지를 사용하였고 각각의 속성에서 값은 보수적(전통고수), 문화변혁적, 적절성(포용성장), 자유적(시장주도)으로 정하였다. 보수적이라 함은 설립이념과 교육목적에 있어서 정관과 각종 규정문서에 표기한 바를 충실히 따르는 것을 의미하며 자유적이라 함은 시장과 사회 환경의 변화에 최대한 부응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만약 교육 콘텐츠에서 속성 값이 보수적이라면 경전중심, 기독교 중심을 강조하는 것이며 자유적이라면 사회가 요구하는 학문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학문의 자유의 최대한 보장 즉, 세속적 지향을 의미한다. 문화변혁적이라 함은 세속적인 문화를 잘 파악하고 연구하여 성경적 관점에서 문화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지향을 의미하며 적절성이라 함은 다양한 문화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되 근본 신념이나 가치체계는 버리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Figure 1의 내용은 분포도를 구하여 도시하는 것으로서 설문조사를 통하여 구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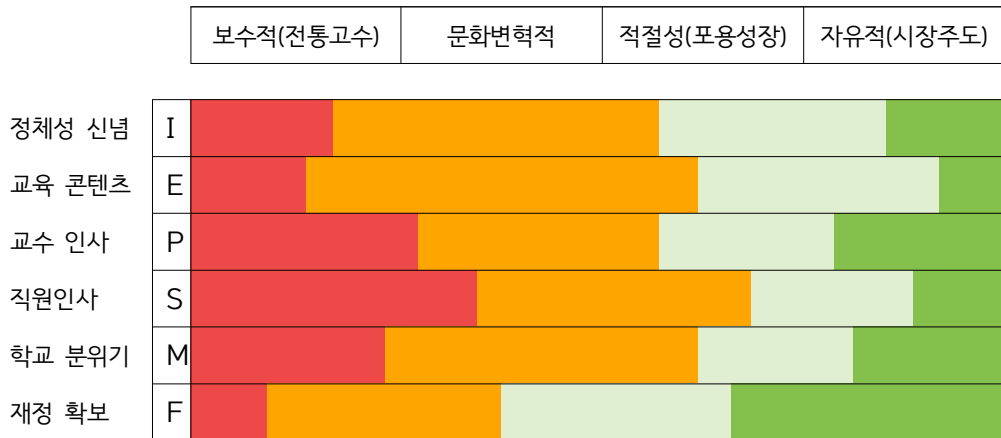


Figure 1. 기독교대학의 6가지 성공의 속성과 그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도식

IV. 설문조사와 통계분석

한남대학교 교수가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을 어떤 기독교대학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기독교대학으로서 성공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적인 사항의 질문지는 대부분을 선행연구인 김지원의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교수의 기독교대학에 대한 인식도 조사, 2022년도 기독교학문연구회 학술대회 논문집, 404-428”를 원용하였고 일부 문항은 추가하였다. 문항과 두 대학의 결과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였고 조사에 응한 인적 통계는 Table 2와 같다. 재직 중인 전임교수의 분포는 2023년4월 현재 정년계열이 306명(75%), 비정년계열이 100명(26%)이며, 비정년계열 중에서 중점교수 58명, 외국인교수 19명, 연구교수 23명이다. Table 2에서 응답자의 분포를 보면 정년계열이 79%, 비정년계열이 21%이며, 근속연수별로 보면 10년 미만이 44%로 10년 이상자 56%에 비해 높은 편이다. 전임교수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는 61명으로서 응답율이 15%에 그쳐 호응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고 반면에 백석대학교는 138명이 참여하여 응답율이 25.3%이었다. 한남대학교의 응답율이 더 낮은 것을 볼 때, 이러한 조사에 대한 필요성 및 관심도가 낮음을 볼 수 있고, 더불어 접근도도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한남대학교 교수의 설문조사 응답자 통계

	구분	빈도	퍼센트
지위	비전임	2	3.3
	비정년	11	18.0
	정년제	48	78.7
근무연수	0~9년	27	44.3
	10~19년	17	27.9
	20년 이상	17	27.9
	전체	61	100.0

IV-1. 교수의 기독교대학에 대한 일반적 인식도 조사 결과 및 고찰

1) 사례대학의 선정 이유

한남대는 19세기말부터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했던 미국 남장로교선교재단에 의하여 1956년 기독교적 정신과 이념을 가지고 설립된 기독교대학으로서 현재는 선교사들의 1세대 운영에 이어서 한국인들로 구성된 독립 학교법인이 2세대 운영을 맡아 하고 있는 학생 수 1만 5천명 이상의 대형 지방 사립대학이다. 백석대는 1976년 설립자 장종현에 의하여 개혁주의생명신학이라는 이념 하에 예수 중심의 철학으로 현재도 1세대 경영이 진행 중인 학생 수 1만5천명 이상의 대형 지방 사립대학이다. 이 대학들은 모두 설립이념과 교육목적에 있어서 개신교 기독교 대학을 표방하고 있으며 교목실을 두고 의무 종교 수업으로서 채플 및 성서관련 필수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수들도 기독교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남대는 설립 주체였던 선교사들로부터 선교적 사명에 대한 전통과 역사를 물려받은 비교적 기독교 교육시스템이 잘 갖춰진 대학으로서 정체성에 대한 전통과 컨텐츠는 풍부하나 구성원들의 분위기는 매우 자유로워 신앙과 학문에 있어서 대부분을 자율에 맡기는 편이다. 따라서 예수-중심성의 일체감 및 기풍은 상당 부분 약화되어 세속화의 경향이 있으며 거대화로 인한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 백석대는 경영진의 정체성 강화 동력이 매우 강한 대학으로서 '성경이 답이다'와 '하나님 중심'을 슬로건으로 하는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을 전개하여 교육철학과 선교사명을 분명히 하면서 최근 양적성장이 두드러졌으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우려와 앞으로 진행될 극심한 경쟁에서 이미지 제고가 가능할지 관심사안이 되고 있다. 채플수업은 한남대는 4학기를, 백석대는 전 학기를 의무로 하고 있다. 기독교 정체성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백석대는 3개 팀으로 이루어진 백석정신아카데미(원장 설립자)를 두고 있다. 한남대는 부설기관인 인돈학술원을 두고 있는데 주로 설립 선교사들의 선교역사적 학술연구 및 아카이브 소장관리를

말고 있고 정체성 강화 콘텐츠 개발이나 프로그램의 운영은 하고 있지 않다.

설문 문항은 백석대의 김지원 교수가 개발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되 일부 학교에 따라 고유한 부분은 달리하였다. 백석대의 조사내용은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교수의 기독교대학에 대한 인식도 조사”라는 논문에 발표하였으며²⁸⁾ 본 논문에서는 그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2) 기독교대학으로서 인식도 (1번~3번)

두 대학 모두 교수들은 90% 이상이 기독교대학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매우 높은 인식도를 보였고 그 이유로는 ‘설립정신’, ‘채플과 예배’, ‘기독교적 교육’, 그리고 신자로 구성된 구성원을 들었다. 잘하고 있는 것으로는 두 대학 모두 ‘복음전파’나 ‘합리적 경영’보다는 ‘정체성 노력’과 ‘건축 및 조경’이 두드러졌다. 기독교대학으로 나아가는 데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한 기대도 높아서 한남대학교는 ‘정체성 강화’와 ‘기독교수개발’, 그리고 ‘기독교적 활동 확대’를 들었고 백석대학교는 ‘학원 복음화’, ‘기독교적 경영과 행정’, 그리고 ‘소통, 배려, 존중’을 꼽았다. 즉, 한남대는 기독교대학의 본질과 가치의 강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백석대는 복음전파와 경영진의 배려를 바라고 있다.

3) 동료들에 대한 평가 (4번~5번)

두 대학의 교수들은 채용 시 신앙검증을 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기독교 신자로 구성되어 있다. 한남대는 서류요건에 수세증명서가 있고 백석대는 본부 면담에서 강한 검증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동료들을 인식할 때는 최소한 교육현장과 업무분야에서 기독교인답게 행동 및 실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한 설문으로 일반 신앙행위인 예배와 기도에 더하여 예수-중심성의 실천을 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동료 교수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로 보느냐는 질문에 한남대는 6%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5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백석대는 22%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3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한남대의 교수는 동료들의 근무 행태에 대해 ‘실천적 무신론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직 교수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로 보느냐는 질문에 한남대는 16%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3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백석대는 26%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2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여기서도 한남대의 교수들은 보직자들의 근무 행태에 대해 ‘실천적 무신론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남대는 교수들이 기독교대학의 활동영역에서 예수-중심의 행동과 실천이 약하고 공동체적 일체감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된다.

28) 김지원 (2022).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교수의 기독교대학에 대한 인식도 조사, 2022년도 기독교학문연구회 학술대회 논문집, 404-428.

4) 기독교대학에 대한 헌신도와 미래 전망 (6번~9번)

진정한 기독교대학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한 헌신도를 묻는 질문에 두 대학 모두 현재와 미래에 강한 욕구가 나타났다. 헌신의 내용으로는 ‘학생 상담과 전도’, ‘기독교적 교육’, ‘기도와 예배’ 등으로서 기독교대학의 본질과 가치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개인적 헌신의 욕구에 비해서 대학이 진정으로 그렇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는 두 대학 모두 80% 욕구에 비하여 한남대의 경우 44% 전망을 보임으로서 백석대의 70% 전망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다.(Figure 2) 이것은 개인적 헌신에 대한 욕구 대비 대학의 발전 전망이 약하며 한남대는 심각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그 이유로서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향후 재정적인 위기와 이를 극복하려는 경영에 대한 불안이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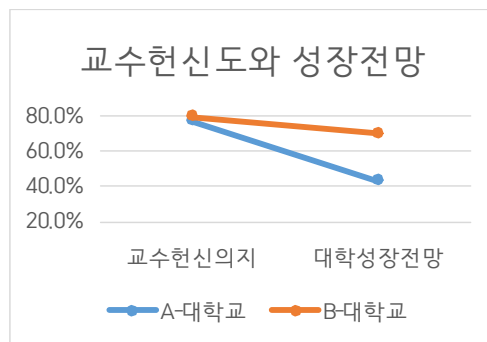


Figure 2. 교수들의 진정한 기독교대학에 대한 헌신의지와 대학의 성장에 대한 전망도 반대의 문항으로서 진정한 기독교대학이 아닌 하나의 일반대학으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두 대학 모두 그렇다와 그렇지 않을 것이다가 비슷하게 나왔다. 따라서 두 대학의 교수들은 개인적으로 현재 헌신의 의지가 높지만 앞으로 대학이 진정한 기독교대학으로 갈지 아니면 세속적인 하나의 일반대학으로 갈지에 대해 어느 쪽도 확신이 없는 방향감각 상실의 상태를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5) 설립이념과 영적활력 (10번~13번)

대학의 설립이념에 대한 이해도에 대해서는 두 대학 모두 70%~90%의 아주 높은 이해도를 보였다. 그러나 그 설립이념에 걸맞게 학교가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백석대는 긍정이 부정보다 2배 높지만, 한남대는 부정이 긍정보다 더 높게 나왔다. 여기서 한남대에 개선이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중심 교육’, ‘교수 정체성’, ‘참 기독교인재 배출’ 등으로 조사되었고 그 밖에 ‘투명경영과 공정한 대우’, ‘위기극복을 위한 협력과 기도’ 등도 나타났다. 따라서 한남대는 영적활력을 되찾기 위한 어떤 개혁이 요구되는데, 교수의 정체성을 복돋음으로서 그리스도-중심

의 교육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참 기독교인재 배출을 목적으로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구성원들의 기도와 협력을 받아 이루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6) 정부주도의 평가에 대한 인식 (14번~15번)

대학인증 등 각종 정부 평가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은 두 대학 모두 대학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60%) 그 이유로는 대학역량의 개선, 대외 신인도 개선, 행정의 합리화 등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이 기독교대학으로 성장하는데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한남대는 긍정(21%) 보다 부정(32%)이 높게, 백석대는 부정(18%)보다 긍정(41%)이 높게 나타났다. 한남대는 정부주도의 정책이 결국에는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경쟁력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는 대학이 정부에 의해 끌려가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반면에 백석대는 강한 경영진 및 리더십으로 인하여 정부에 의한 통제를 큰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즉 한남대는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정체성과 교육철학을 드러내고 정부의 통제를 견제할 수 있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겠다.

7) 보편적 학문의 추구하고 기독교적 가치의 추구 (17번~18번)

현재와 미래를 기준으로 한남대가 ‘기독교적 가치 및 정체성의 추구’에 있는지 ‘보편적 학문의 자유 및 수월성의 추구’에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서 현재는 ‘보편적 학문의 자유 및 수월성의 추구’가 두 배 이상 강하지만 미래에는 ‘기독교적 가치 및 정체성의 추구’가 두 배 이상 강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한남대는 향후 세속적인 기풍 보다는 기독교성을 강화하는 기독교적 기풍 즉 ‘미션 에토스’가 강화되는 것을 구성원들이 소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Figur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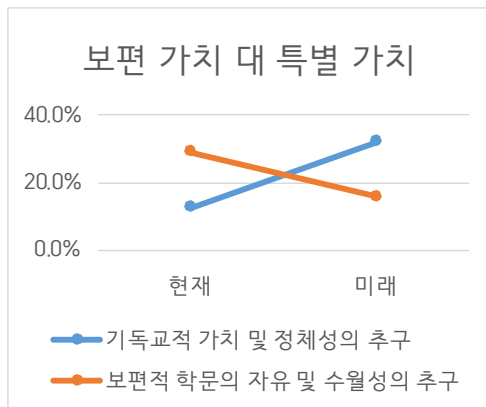


Figure 3. 한남대 교수들의 대학 기풍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인식

8) 종합 고찰(16번)

개별 문항들과 각자의 소견을 묻는 16번 응답을 종합해 볼 때, 두 대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 해 볼 수 있다. 두 대학 교수들은 기독교대학에 대한 이해와 헌신 의지를 모두 높게 갖추고 있으나 학교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크게 밑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백석대는 지금도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복음전파의 '선교적 활동'을 발전시키되 경영진의 행정 투명성과 구성원들의 배려, 존중, 소통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지원은 개혁주의생명신학의 건학이념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세상적인 방식의 경영과 행정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적인 가치인 '사랑'과 '존중'을 놓치면서 구성원들의 소중한 '영적 생명력'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진단하였다. 또한 '대학 정체성'을 강화하되 '세상 평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사랑과 존중의 가치를 높여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는 학교로 운영을 함으로써 '기독교대학의 문화'로 나아가기를 제안하였다.

한남대는 약화된 대학 설립이념과 기독교교육의 가치와 본질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교수정체성 강화'와 대학 내 '전반적인 신앙 활동' 즉 '기독교적 분위기'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설립이념과 교육목적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지도에 비하여, 그리고 진정한 기독교대학으로의 발전을 위한 헌신 의지에 비하여 동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로 인식하며 학교의 운영에 있어서 '그리스도-중심성'이 부족하며 '교수의 정체성'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약하고 또한 '참기독교인재 배출'에서도 부족하여 공동체의 '영적 생명력'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것은 '정체성의 위기' 징후이며 향후 다가 올 '재정 위기'와 맞물려 미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중심성'의 '대학 정체성'을 살려내고 동시에 정부의 재정을 구실로 하는 평가와 통제를 조절해 내면서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두 대학에 보이는 공통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기독교대학의 생존은 대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지 생존을 위해서 목적을 도구화하고 목적을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독교대학의 설립이념과 교육목적은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의 근간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수 정체성'과 '영성 활동'을 강화시켜야 한다. 동시에 '학생 존중'과 '믿음과 배움의 통합'과 같은 기독교적 문화 또는 기풍이 필요하다. 그리고 리더십과 경영진은 사랑과 존중을 보여주는 '기독교적 경영과 행정'을 펼쳐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영적 생명력'을 불러일으켜 기독교대학이 일반대학으로 세속화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본질과 가치를 추구하는 탁월한 기독교대학으로 살아 남아야 한다. 끝으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재정은 구성원들의 몫이라기보다는 이사진과 리더십에 달려있다. 정부의 재정은 항상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하며 과도한 정부 재원 의존도는 결국에는 기독교대학이 있어야 할 자리를 내어 주는 격이 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내부적인 재정 건전성을 반드시 병행하여 추구하여야만 할 것이다.

IV-2. 한남대학교 교수가 인식하는 기독교대학의 성공 속성 결과 및 고찰

먼저 Table 1과 같은 6개의 질문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판단해 보기 위하여 크론바흐 알파 값을 구해서 Table 3에 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이 값은 0.7 이상이면 받아들일 수 있으며 0.8 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하므로 이 질문들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6가지의 성공 속성에 대한 응답결과의 분포도를 Figure 4에 표시하였다. Table 1의 각 질문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를 보수적(전통고수), ②에 응답하였으면 문화변혁적, ③에 응답하였으면 적절성(포용 성장), 그리고 ④에 응답하였으면 자유적(시장주도)라고 구분하였다. 따라서 '정체성 신념'의 응답분포도는 보수적(전통고수)에 27.87%, 문화변혁적에 49.18%, 적절성(포용 성장)에 14.75%, 그리고 자유적(시장주도)에 8.2%가 응답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②와 ③의 경계에 오각형 마크를 하였고 6가지의 속성마다 오각형 마크를 이어서 은선으로 나타내었다. 이것은 한남대학교 대학성공의 속성 프로파일을 나타낸다. 즉 '정체성 신념'과 '교육콘텐츠'에서는 보수적이며 문화변혁적인 것을 성공으로 보는 인식이 강하며, '재정확보'와 '교수인사'에 있어서는 보수적이라기 보다 문화변혁적이며 적절성(포용 성장)을 성공으로 인식하며, '직원인사'와 '학교분위기'에 있어서는 문화변혁적인 것을 성공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한남대학교가 '재정확보'에서는 개방적으로 다양성과 외부환경의 적절한 수용이 요구되는 반면에 '정체성'과 '교육 콘텐츠'에 있어서는 전통의 고수와 문화변혁적인 즉, 선교지향을 가져야 함을 알 수 있다. Figure 4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실증적인 방법으로 한남대학의 성공의 속성 값을 찾을 수 있었으며 이것을 목표 값으로 하는 성공요인들을 찾아 여러 가지 전략과 방법론을 찾아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한남대학교의 성공의 속성을 묻는 질문에 고빈도 응답한 항목들은 순위별로 모아 Table 4에 수록하였다.

Table 3. 기독교대학의 성공의 속성을 묻는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사

연구변수	문항 수	Cronbach's α 계수
대학 성공속성	6	.8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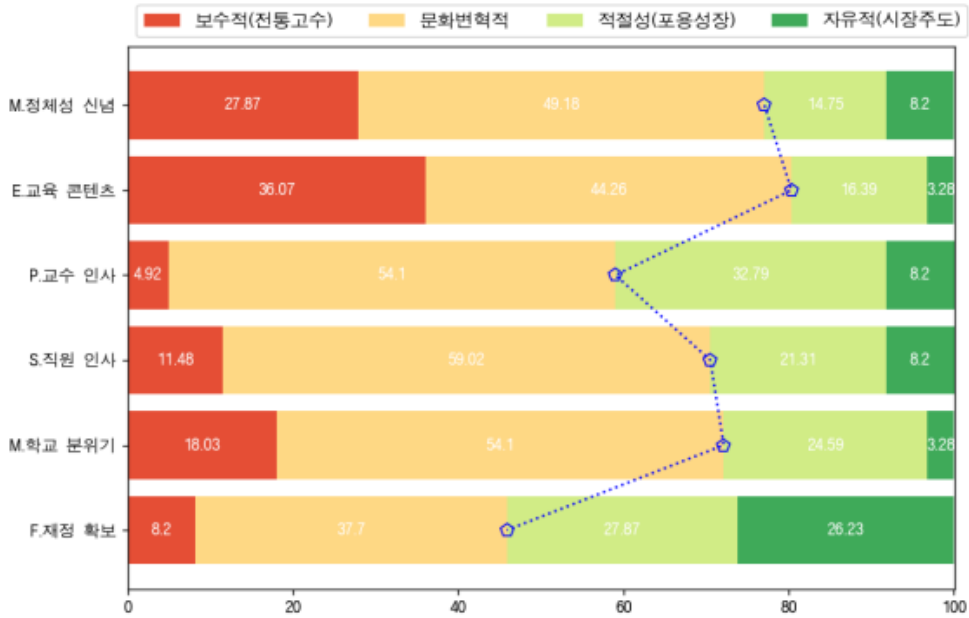


Figure 4. 한남대학교 교수들이 인식하고 있는 기독교대학의 성공 속성 프로파일

Table 4. 교수 설문조사에 의한 기독교대학의 성공의 속성 값의 고빈도 항목

정체성 신념	I	②정신은 계승하되 시대적 요구와 절충한다.(49%) ①창학 정신과 설립이념을 확고하게 유지한다.(28%)
교육 콘텐츠	E	②교과목의 유지보다는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절충점을 찾아 나간다.(44%) ①기독교 교과목과 채플을 의무과목으로 확고하게 유지한다.(36%)
교수 인사	P	②신앙 자체보다는 기독교적으로 학문과 신앙을 통합하는 능력을 요구한다.(54%) ③기독교적인 부분은 최소한으로 하고 학문적 연구의 수월성을 강화한다.(33%)
직원인사	S	②업무적인 분야에서 신앙적인(사랑, 공정, 협력, 포용) 부분이 나타나도록 한다.(59%) ③신앙적인 부분은 최소한으로 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우선시한다.(21%)
학교 분위기	M	②교육은 전문적인 내용으로 하고 대학 생활에서 기독교적인 분위기를 나타낸다.(54%) ③신앙적인 부분은 최소한으로 하고 더 많은 인본주의적 가치를 지향한다.(25%)
재정 확보	F	②내부적인 재정 건전성을 우선으로 하고 외부 재원은 보조 수단으로 한다.(38%) ③외부 재원을 최대한으로 유치하여 학교 발전에 투입한다.(28%) ④대학평가 등의 공적자금을 포함한 외부 자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26%)

V. 결론

대학교육의 정치화 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개혁안들이 대통령선거 주요 공약으로 등장하고 정권인수차원에서 대학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그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주로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하고 있다. 각 대학들의 대응에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이지 못함으로서 많은 중복과 모방이 일어났고 우리나라 대학의 고질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동형구조화현상이 개선되지 못하였다.

이 세상의 창조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과, 그리스도에 의해 계시된 온전한 인간상을 내용으로 하는 기독교를 통하지 않고는 참 인간성과 참 문화 형성이 불가하다 할 것이다. 기독교적 교육은 인간 지향적이거나, 기술 지향적이거나, 사회 지향적인 교육의 한계점을 진리, 곧 하나님 지향적인 방향으로 비로소 온전케 재건하여 현대사회의 많은 난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다. 기독교 세계관적 견지에서 교육의 결과는 성과보다는 변화를, 경쟁보다는 협동을 더 중시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효율과 수월성은 철저히 그 변화와 협동의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즉, 경쟁이 변화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성과가 협동을 유도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다.

정부사업을 위한 대학 내의 구조조정이나 교육과정 개편은 당연히 되는 반면, 학생들의 수준을 감안하거나 학문분야의 발전으로서나 특성화 또는 대학의 설립이념과 장단기 비전에 의한 교육과정 개편은 기대하기 어렵다. 대학의 교육과정이 더 이상 교수들의 경험과 전문성과 역량의 집합체라고 하는 말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정부의 정책기조와 대형사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자연스럽게 교육과정을 흐트러 놓고 있다. 서너 가지의 서로 다른 정부사업 때문에 변형되고 끼워 맞추어진 교육과정은 점점 대학의 설립이념과 교육목표를 심도 있게 담아내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기독교대학이 그 본질과 가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문헌조사 연구방법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인 백석대학교의 사례를 사용하여 한남대학교 교수를 대상으로 하여 기독교대학에 대한 일반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하여서는 기독교대학의 교육이 인공지능과 4차 산업 그리고 저성장으로 대변되는 대전환의 시대에 여전히 교육을 통한 선교의 적실함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교수들의 인식 속에 있는 자기들이 근무하고 있는 기독교대학의 상을 통해서는 설립이념과 교육목적에 매우 헌신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다각도로 활동을 하고 있으나 미래에 대한 신념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주로 정체성의 상실, 세상과 같은 방법론의 학교경영에 대한 불신,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학교 운영 재정에 대한 위기의식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독교대학이 위기에 대응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방향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점에서 국내 기독교대학들은 깊이 있는 연구들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미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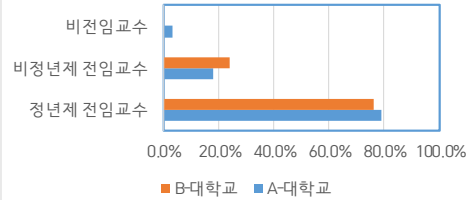
경우와 같이 연합체인 CCCU에서 기독교대학과 관련되는 여러 실증적인 연구들을 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그러한 활동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의 기독교대학들은 일반적 담론에 그치지 않고 고등교육기관에 걸맞게 자기 기관들에 대한 조직론, 경영론, 혁신론, 문화론, 역사론 등의 분야에서 연구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직론적 관점에서 조직 효능감을 바탕으로 한남대학교의 교수들이 인식하는 기독교대학의 성공의 속성과 그 수준들을 제시하고 측정해 보았다.

한편 한남대학교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교수들의 설문조사 응답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는 당면한 기독교대학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위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공동체 문화적인 관점에서 공동의 주제에 대한 공감 및 소통이 부족하다 할 수 있다. 둘째로, 교수들의 현재 대학에 대한 헌신의지는 매우 높은 반면 미래 발전에 대한 기대치는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리더십의 비전제시가 부족하고 따라서 교수 역량을 집결하여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음을 시사한다. 셋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한남대학교는 현재보다는 두 배 이상으로 더욱 기독교적 정체성과 가치를 추구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뉴노멀이 전개될 미래에 한남대학교는 하나의 대학으로서가 아니라 뚜렷한 기독교대학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시장주의적 학문의 자유지향보다는 기독교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바탕으로 한 수월성을 추구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로 한남대학교 교수들이 인식하는 한남대학교의 성공 속성들을 실증적으로 구하였다. 이것은 이론연구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고 교수들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생각한 결과물이라는 데서 매우 실증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공속성은 대학의 성공의 목표 값으로 분명히 설정할 수 있다는 면에서 대부분의 대학이 경험하는 무지향성의 바다에서 등대와 같은 매우 유용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한남대학교는 정체성과 교육에 있어서는 문화변혁적이며 전통을 고수하는 것을, 교수인사, 직원인사, 학교분위기에 있어서는 문화변혁적이며 포용성을, 재정확보에 있어서는 포용성과 시장주도를 반영하는 것을 성공으로 인식하고 있다. 향후 연구로는 이러한 성공속성을 목표 값으로 할 때, 대학성공을 위한 대학운영의 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록> 한남대학교(A-대학교)와 백석대학교(B-대학교)의 설문지와 응답결과 비교요약

귀하의 지위는 어느 것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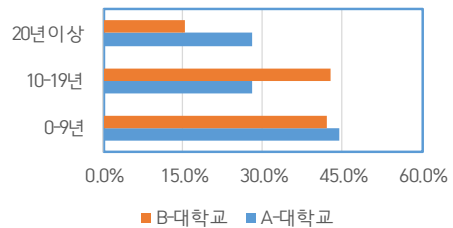
정년제 전임교수	78.7%	76.1%
비정년제 전임교수	18.0%	23.9%
비전임교수	3.3%	0.0%



• A & B: 정년제 76~79%

귀하의 근무연수는 어떻게 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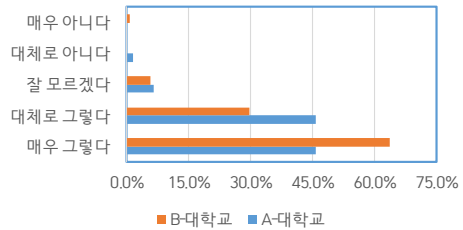
0-9년	44.3%	42.0%
10-19년	27.9%	42.8%
20년이상	27.9%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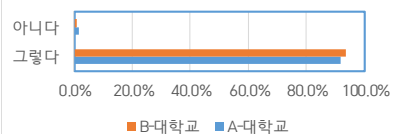
• 20년 이상: A(28%) > B(15%)

1. 우리 대학이 기독교대학이라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45.9%	63.8%
대체로 그렇다	45.9%	29.7%
잘 모르겠다	6.6%	5.8%
대체로 아니다	1.6%	0.0%
매우 아니다	0.0%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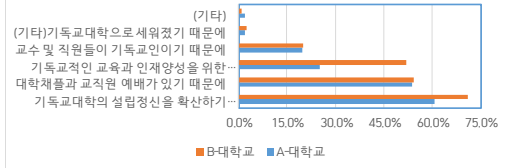


• A & B: 90% 이상 기독교대학으로 인식



1-1. 우리 대학이 기독교대학이라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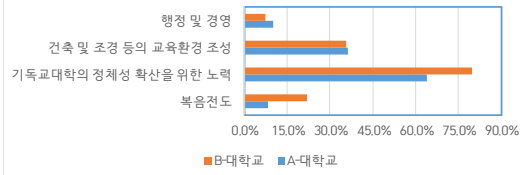
기독교대학의 설립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60.7%	71.0%
대학채플과 교직원 예배가 있기 때문에	53.6%	54.2%
기독교적인 교육과 인재양성을 위한 노	25.0%	51.9%
교수 및 직원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19.6%	19.8%
(기타)기독교대학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1.8%	2.4%
(기타)	1.8%	0.8%



• A & B: 설립정신 > 채플 수업과 예배 > 기독교적 교육

2. 우리 대학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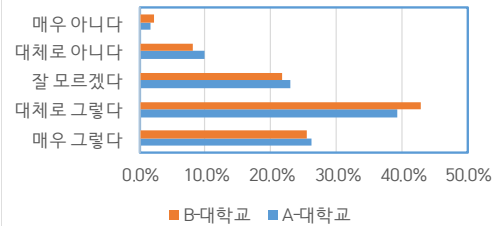
복음전도	8.2%	21.7%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확산을 위한 노력	63.9%	79.7%
건축 및 조경 등의 교육환경 조성	36.1%	35.5%
행정 및 경영	9.8%	7.2%
(기타)	16.4%	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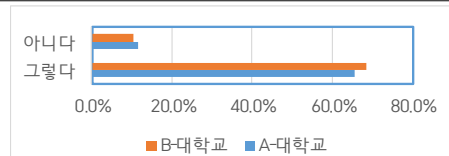
• A & B: 정체성(64~80%) > 건축과 조경(36%)
 • A: 행정 및 경영, B: 복음전도

3. 우리 대학이 기독교대학으로 나아가는데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26.2%	25.4%
대체로 그렇다	39.3%	42.8%
잘 모르겠다	23.0%	21.7%
대체로 아니다	9.8%	8.0%
매우 아니다	1.6%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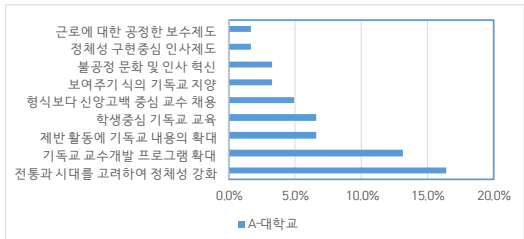


• A & B: 긍정(65%) > 부정(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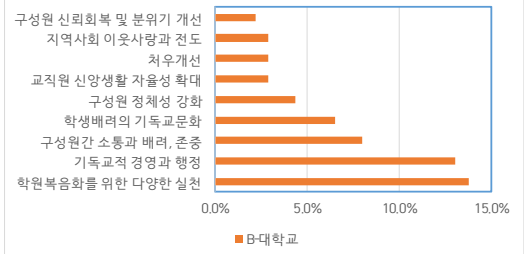


3-1.우리 대학이 기독교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전통과 시대를 고려하여 정체성 강화	16.4%
기독교 교수개발 프로그램 확대	13.1%
제반 활동에 기독교 내용의 확대	6.6%
학생중심 기독교 교육	6.6%
형식보다 신앙고백 중심 교수 채용	4.9%
보여주기 식의 기독교 지양	3.3%
불공정 문화 및 인사 혁신	3.3%
정체성 구현중심 인사제도	1.6%
근로에 대한 공정한 보수제도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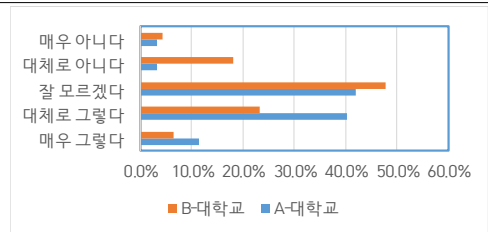
학원복음화를 위한 다양한 실천	13.77%
기독교적 경영과 행정	13.04%
구성원간 소통과 배려, 존중	7.97%
학생배려의 기독교문화	6.52%
구성원 정체성 강화	4.35%
교직원 신앙생활 자율성 확대	2.90%
처우개선	2.90%
지역사회 이웃사랑과 전도	2.90%
구성원 신뢰회복 및 분위기 개선	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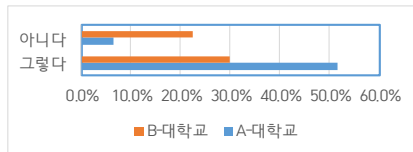
- A: **정체성강화** > **기독교교수개발** > 기독교활동 확대
- B: **학원복음화** > **경영과 행정** > 소통, 배려, 존중

4. 우리 대학의 평교수(보직자 제외)들이 성경읽기와 기도, 교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 님과는 상관없는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11.3%	6.5%
대체로 그렇다	40.3%	23.3%
잘 모르겠다	41.9%	47.8%
대체로 아니다	3.2%	18.1%
매우 아니다	3.2%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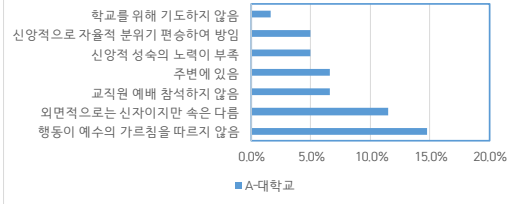
- A: **긍정(52%)** > **부정(6%)**
- B: **긍정(30%)** > **부정(22%)**



※ A대학은 평교수의 '무신론적 행태'가 매우 심하다.

4-1. 4번 질문(평교수가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응답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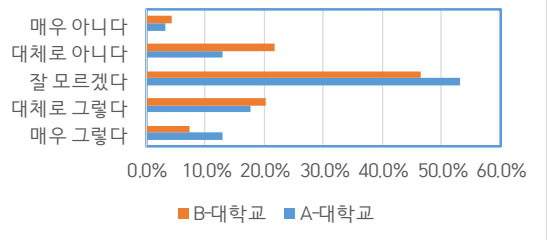
행동이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음	14.8%
외면적으로는 신자이지만 속은 다름	11.5%
교직원 예배 참석하지 않음	6.6%
주변에 있음	6.6%
신앙적 성숙의 노력이 부족	4.9%
신앙적으로 자율적 분위기 편승하여 방'	4.9%
학교를 위해 기도하지 않음	1.6%



• A: 행동으로 실천 없음(15%) > 결과 속이 다름(12%)

5. 우리 대학교의 리더에 해당하는 주요 보직자들이 성경읽기와 기도, 교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과과는 상관없는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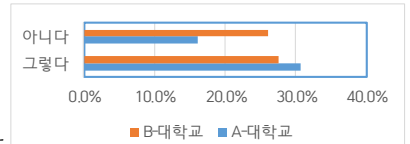
매우 그렇다	12.9%	7.2%
대체로 그렇다	17.7%	20.3%
잘 모르겠다	53.2%	46.4%
대체로 아니다	12.9%	21.7%
매우 아니다	3.2%	4.3%



• A: 긍정(31%) > 부정(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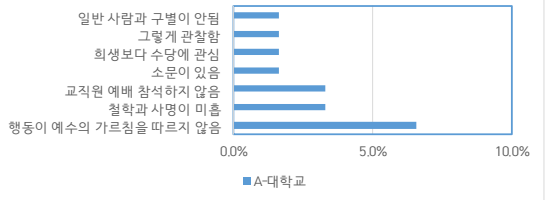
• B: 긍정(28%) ≈ 부정(26%)

※ A대학은 보직교수의 '무신론적 행태'가 심하다.



5-1. 5번 질문(우리 대학교의 리더에 해당하는 주요 보직자들이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응답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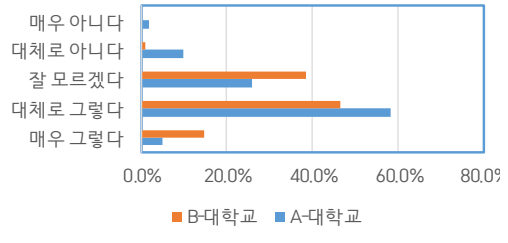
행동이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음	6.6%
철학과 사명이 미흡	3.3%
교직원 예배 참석하지 않음	3.3%
소문이 있음	1.6%
희생보다 수당에 관심	1.6%
그렇게 관찰함	1.6%
일반 사람과 구별이 안됨	1.6%



• A: 행동으로 실천 없음(7%) > 철학과 사명이 미흡(3%), 예배 드리지 않음(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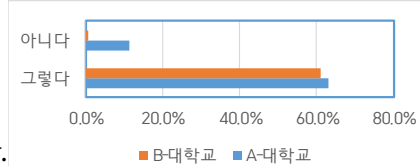
6. 교수님은 우리 대학교가 진정한 기독교대학으로 성장하는데 헌신하고 있습니까?

매우 그렇다	4.8%	14.5%
대체로 그렇다	58.1%	46.4%
잘 모르겠다	25.8%	38.4%
대체로 아니다	9.7%	0.7%
매우 아니다	1.6%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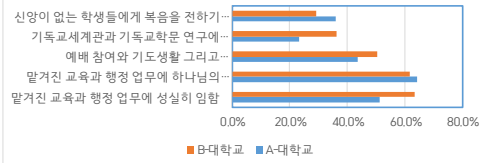
- A: 긍정(63%) > 부정(11%)
- B: 긍정(61%) > 부정(1%)

※ A & B 진정한 기독교대학 요구가 강하다.



6-1. 우리 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으로 성장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헌신하는지 응답해주세요. (1-3개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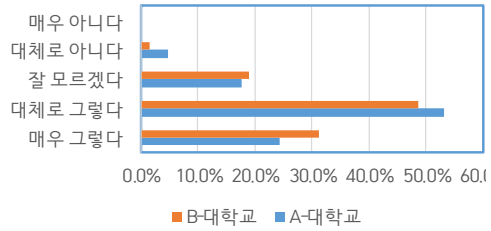
말겨진 교육과 행정 업무에 성실히 임함	51.3%	63.2%
말겨진 교육과 행정 업무에 하나님의 뜻	64.1%	61.7%
예배 참여와 기도생활 그리고 복음전파	43.6%	50.4%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학문 연구에 적극	23.1%	36.1%
신앙이 없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35.9%	29.3%



- A: 하나님 뜻 구함(64%) > 성실(51%) > 예배, 기도, 전도(44%) > 기독교 학문(23%)
- B: 성실(63%) > 하나님 뜻 구함(62%) > 예배, 기도, 전도(50%) > 기독교 학문(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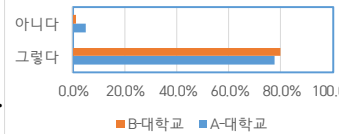
7. 우리 대학교가 진정한 기독교대학으로 성장하는데 헌신하고 싶으십니까?

매우 그렇다	24.2%
대체로 그렇다	53.2%
잘 모르겠다	17.7%
대체로 아니다	4.8%
매우 아니다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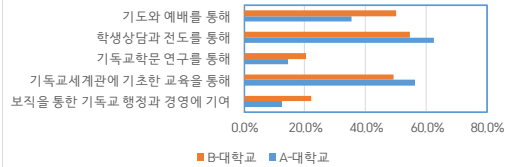
• A & B: 긍정(80%) > 부정(1~5%)

※ A&B 진정한 기독교대학 헌신 욕구가 매우 강하다.



7-1. 우리 대학교가 진정한 기독교대학으로 성장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헌신하고 싶으신가요? (1-3개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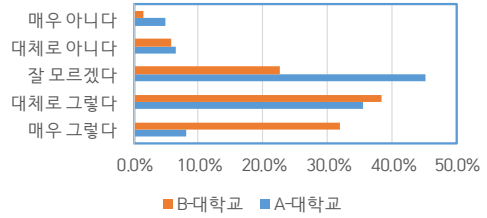
보직을 통한 기독교 행정과 경영에 기여	12.5%	22.0%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교육을 통해	56.3%	49.2%
기독교학문 연구를 통해	14.6%	20.5%
학생상담과 전도를 통해	62.5%	54.5%
기도와 예배를 통해	35.4%	50.0%



- A: 학생 상담과 전도(63%) > 기독교세계관 교육(56%) > 기도과 예배(35%)
- B: 학생 상담과 전도(55%) > 기도과 예배(50%) > 기독교세계관 교육(49%)

8.우리 대학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독교대학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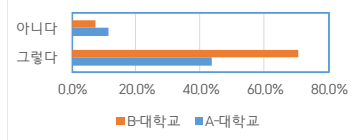
매우 그렇다	8.1%	31.9%
대체로 그렇다	35.5%	38.4%
잘 모르겠다	45.2%	22.5%
대체로 아니다	6.5%	5.8%
매우 아니다	4.8%	1.4%



• A: 긍정(44%) > 부정(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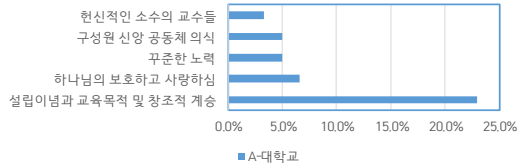
• B: 긍정(70%) > 부정(7%)

※ B보다 A가 기독교대학 지속 성장 전망이 강하다.



8-1. 8번 질문(우리 대학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독교대학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 주세요.

설립이념과 교육목적 및 창조적 계승	23.0%
하나님의 보호하고 사랑하심	6.6%
꾸준한 노력	4.9%
구성원 신앙 공동체 의식	4.9%
현신적인 소수의 교수들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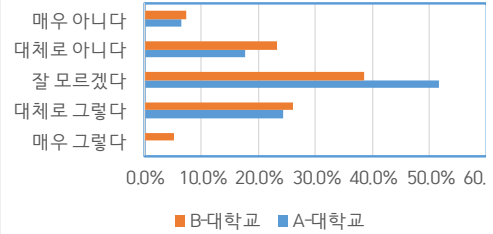


• A: 설립이념과 교육목적의 계승(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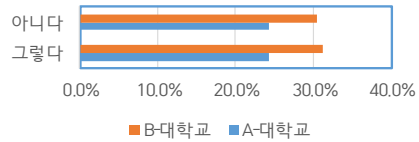
※ A 대학은 설립이념과 교육목적 전망이 두드러진다.

9. 우리 대학교가 기독교대학이 아닌 하나의 대학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0.0%	5.1%
대체로 그렇다	24.2%	26.1%
잘 모르겠다	51.6%	38.4%
대체로 아니다	17.7%	23.2%
매우 아니다	6.5%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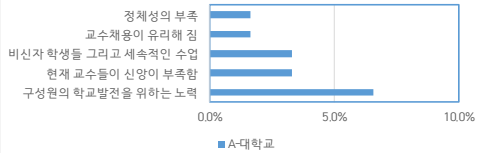


• A & B: 긍정 ≈ 부정



9-1. 질문(우리 대학교가 기독교대학이 아닌 하나의 대학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응답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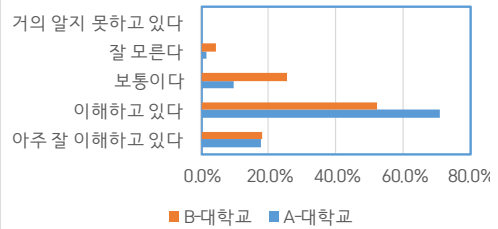
구성원의 학교발전을 위한 노력	6.6%
현재 교수들이 신앙이 부족함	3.3%
비신자 학생들 그리고 세속적인 수업	3.3%
교수채용이 유리해 짐	1.6%
정체성의 부족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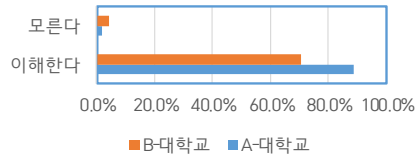
• A: 구성원 노력(7%) > 교수 신앙 부족(3%), 세속학문(3%)

10. 우리 대학교의 설립이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	17.7%	18.1%
이해하고 있다	71.0%	52.2%
보통이다	9.7%	25.4%
잘 모른다	1.6%	4.3%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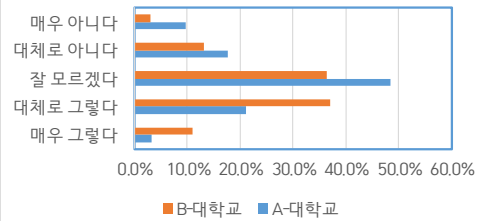


• A & B: 이해 (70~90%) > 모름(4% 미만)



11. 설립이념에 걸맞게 우리 학교가 영적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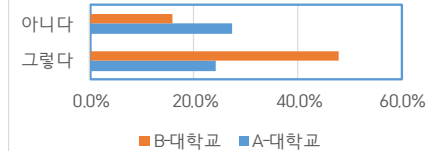
매우 그렇다	3.2%	10.9%
대체로 그렇다	21.0%	37.0%
잘 모르겠다	48.4%	36.3%
대체로 아니다	17.7%	13.0%
매우 아니다	9.7%	2.9%



• A: 긍정 (24%) < 부정(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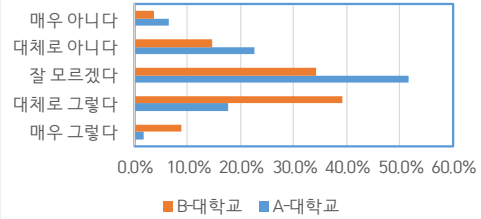
• B: 긍정 (48%) > 부정(16%)

※ A는 영적 공동체 활기가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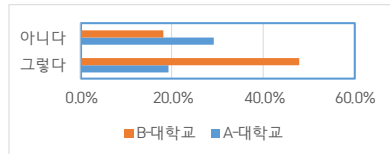
12. 우리 대학에서 이러한 설립정신이 잘 실천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1.6%	8.7%
대체로 그렇다	17.7%	39.1%
잘 모르겠다	51.6%	34.1%
대체로 아니다	22.6%	14.5%
매우 아니다	6.5%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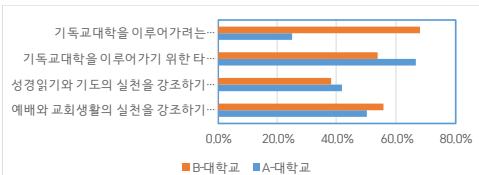
- A: 긍정 (19%) < 부정(29%)
- B: 긍정 (48%) > 부정(18%)

※ A는 설립정신 분위기가 상당히 부족하다.



12-1. 설립이념이 잘 실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는?(1-2개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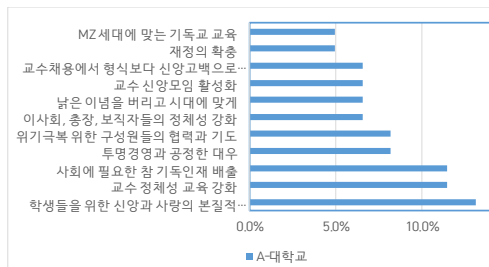
예배와 교회생활의 실천을 강조하기 때	50.0%	55.7%
성경읽기와 기도의 실천을 강조하기 때	41.7%	38.1%
기독교대학을 이루어가기 위한 타 대학	66.7%	53.6%
기독교대학을 이루어가려는 이사회와 리	25.0%	68.0%



- A: 기독교대학 노력 (67%) > 예배와 신앙생활(50%) > 성경읽기와 기도(42%)
- B: 이사회와 리더 노력 (68%) > 예배와 신앙생활(56%) > 기독교대학 노력(54%)

13. 우리 대학교는 “교회와 사회와 세계 필요한 기독교 지도자 양성”이라는 설립이념을 가지고 기독교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해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수님의 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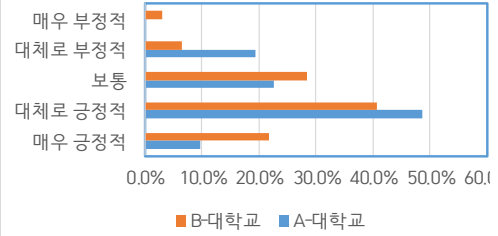
학생들을 위한 신앙과 사랑의 본질적 교	13.1%
교수 정체성 교육 강화	11.5%
사회에 필요한 참 기독교인재 배출	11.5%
투명경영과 공정한 대우	8.2%
위기극복 위한 구성원들의 협력과 기도	8.2%
이사회, 총장, 보직자들의 정체성 강화	6.6%
낡은 이념을 버리고 시대에 맞게	6.6%
교수 신앙모임 활성화	6.6%
교수채용에서 형식보다 신앙고백으로 하	6.6%
재정의 확충	4.9%
MZ 세대에 맞는 기독교 교육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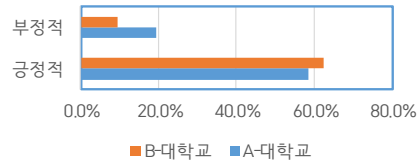
- A: 그리스도중심 교육 (13%) > 교수 정체성(12%) , 참 기독교인재 배출(12%)

14. 대학인증 평가 등 각종 평가가 우리 대학교의 발전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긍정적	9.7%	21.7%
대체로 긍정적	48.7%	40.6%
보통	22.6%	28.3%
대체로 부정적	19.4%	6.5%
매우 부정적	0.0%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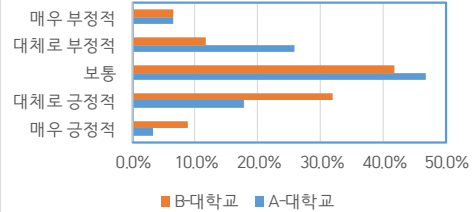


- A: 긍정 (58%) > 부정(19%)
 - B: 긍정 (62%) > 부정(9%)
- ※ A&B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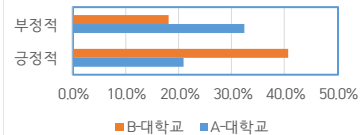


15. 대학인증 평가 등 각종 평가가 한남대학교가 기독교대학으로 성장하는데 끼친 영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긍정적	3.2%	8.7%
대체로 긍정적	17.7%	31.9%
보통	46.8%	41.8%
대체로 부정적	25.8%	11.6%
매우 부정적	6.5%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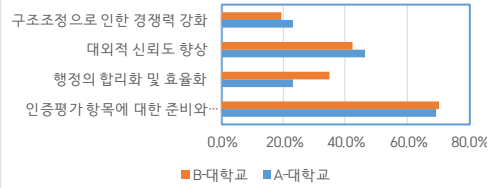


- A: 긍정 (21%) < 부정(32%)
 - B: 긍정 (41%) > 부정(18%)
- ※ A는 기독교대학으로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15-1. 대학인증 평가 등이 기독교대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1-2개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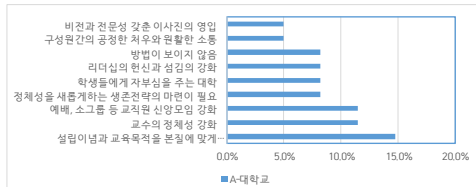
인증평가 항목에 대한 준비와 개선으로	69.2%	70.2%
행정의 합리화 및 효율화	23.1%	34.6%
대외적 신뢰도 향상	46.2%	42.3%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쟁력 강화	23.1%	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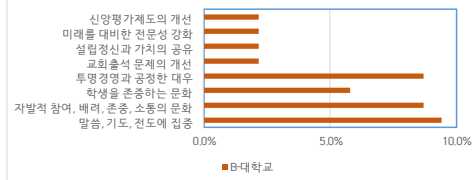
• A & B: 대학역량 개선(70%) > 대외 신인도 개선(42~46%) > 행정의 합리화 (23~35%)

16. 우리 대학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독교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 평상시 가지고 계셨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적어주세요. (허심탄회: 감춤이 없이 솔직하여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음)

설립이념과 교육목적을 본질에 맞게 교	14.8%
교수의 정체성 강화	11.5%
예배, 소그룹 등 교직원 신앙모임 강화	11.5%
정체성을 새롭게하는 생존전략의 마련	8.2%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대학	8.2%
리더십의 헌신과 섬김의 강화	8.2%
방법이 보이지 않음	8.2%
구성원간의 공정한 처우와 원활한 소통	4.9%
비전과 전문성 갖춘 이사진의 영입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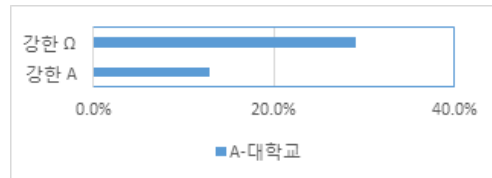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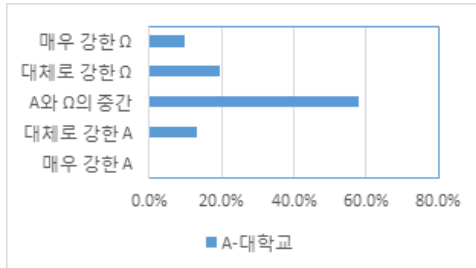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	9.4%
자발적 참여, 배려, 존중	8.7%
학생을 존중하는 문화	5.8%
투명경영과 공정한 대우	8.7%
교회출석 문제의 개선	2.2%
설립정신과 가치의 공유	2.2%
미래를 대비한 전문성	2.2%
신앙평가제도의 개선	2.2%



- A: 설립이념과 교육목적의 본질추구 > 교수 정체성 & 신앙 활동
- B: 말씀, 기도, 전도 & 투명 경영과 공정 > 자발적 배려, 존중,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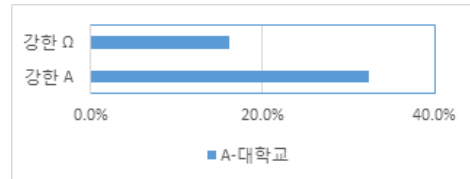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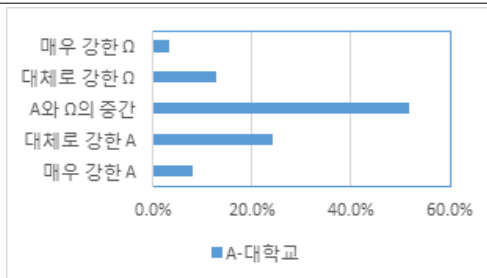
17. 우리 대학교가 '기독교적 가치 및 정체성의 추구'(A)와 '보편적 학문의 자유 및 수월성의 추구'(Q)의 스펙트럼에서 현재 어느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A: 보편적 학문자유와 수월성(29%) > 기독교 가치와 정체성(13%)

※ A 대학은 현재 기독교대학의 정체성보다 보편 학문의 추구가 2배 이상 강하다고 한다.

18. 우리 대학교가 기독교적 가치 및 정체성의 추구(A)와 보편적 학문의 자유 및 수월성의 추구(Q)의 스펙트럼에서 미래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A: 보편적 학문자유와 수월성(16%) < 기독교 가치와 정체성(32%)

※ A 대학은 미래에 기독교대학 정체성의 추구가 필요하다고 2배 이상 강하게 인식한다.

참고문헌

- 김동우 (1998). 한국 기독교대학의 교육이념과 정체성위기에 대한 연구, 28-34.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김세열 (1997). 한국의 기독교대학과 아시아적 조망. 21세기의 아시아와 기독교대학, 10, 7-13.
- 김지원 (2022).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교수의 기독교대학에 대한 인식도 조사, 2022년도 기독교 학문연구회 학술대회 논문집, 404-428.
- 박문식 (2010). IMF 구제금융사건 이후 대학교육개혁의 기독교적 고찰, 신앙과학문, 15(3), 47-76.
- 박진경 역 (1989). 기독교 대학의 이념. Holmes, A.(1987). The Idea of Christian Colleges. (Revised Ed.), CUP.
- 양승훈 (1996). 기독교대학, 그 이상을 꿈꾼다. 빛과소금, 11, 30-32.
- 옥성득 (2021). 대학문제: 조선기독교대학의 설립과정과 정체성, 1913~1917. 동방학지, 196, 353-386.
- 오은수 (1996). 기독교 대학교육의 문제점. 기독교사상, 10(4), 76-81.
- 이동수 (2008). 조직문화유형 척도 OCAI의 측정 속성적 건전성. 사회과학논총, 27(1), 373-394.
- 이신형 (2014). 기독교대학 정체성 회복을 위한 연구, 한국조직신학논총, 40, 129-171.
- 이은실 (2012). 기독교대학 정체성을 위한 교수개발의 방향, 기독교교육정보, 35, 33-67.
- 이원설 (1998). 하나님 중심 세계관과 학문, 기독교언어문화소식, 2, 57-65.
- 이원설 (1998). 신앙과 학문, 2-3, 서울기독교학생회출판부.
- 이정순 (2022). 과학자 계의돈(Dr. Robert L. Geette)박사의 한국 선교이야기, 100-104, 개정판, 기독교문서선교회.
- 정선혜 역 (2017). 하나님의 사람 문명사학자 송계 이원설 박사, 그리스심.
- 조성국 (2005). 기독교대학의 유형과 상황. 고신신학, 105-134.
- 조용훈 (2003). 한국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의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 통합연구, 16(2), 193-224.
- 최영근 (2020).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미국 아그네스스캇대학의 사례연구 -, 대학과 선교, 43, 129-170.
- 최영근 (2022). 인본의 생애와 기독교 정신, 114-128, 한국교회총연합(UCCK).
- 최영근, 송현강, 이재근, 이진구, 한규무 (2022). 미국 남장로회 교육선교 연구, 286-288, 도서출판 동연.
- 허훈, 최무렬, 이경미 (2021). 시뮬레이션을 통한 기독교대학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실증연구, 생명과 말씀, 31, 301-336.

- Cooke, R. A. (1997). *Organization Effectiveness Inventory*, Arlington Heights, IL.
- Dockery, D. & Gushee, D. (1999). *The Future of Christian Higher Education: An introduction*. Broadman and Holman Publishers. Nashville, TN.
- Marsden, G. (1993). *The Soul of the American University: From protestant establishment to established nonbelief*.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Hughes, R. & Adrian, W. (1997). *Models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Strategies for success in the twenty-first century*. Wm. B. Eerdmans–Lightning Source. Grand Rapids, MI
- Obenchain, A., Johnson, W., & Dion, P. (2004). Institutional types, organizational cultures, and innovation in christian colleges and universities, *Christian Higher Education*, 3, 15–39.
- Council for Christian Colleges and Universities. www.cccu.org (2023.7.1.)
- Association of Christian Universities and Colleges in Asia. <https://acuca.net/newacuca/> (2023.7.1.)